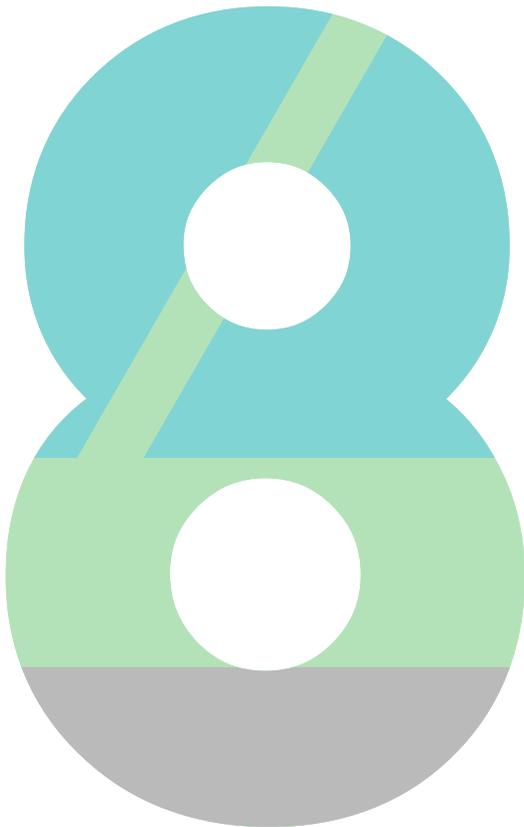


20

2018-1호 [통권 16호]

통계분류 뉴스레터

NEWS LETTER



통계청
통계기준과

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분류(통계법 제22조의 규정)를 비롯하여 총 34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국내·외 통계분류의 개발 및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통계분류 수요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유엔 및 국제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 관련기관의 동향, 그리고 관련 기고문 등 통계분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통계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계분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분류와 관련된 기고문 게재를 희망하거나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042) 481-2566, 25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 1호 [통권 16호] 통계분류 뉴스레터

C·O·N·T·E·N·T·S



1. KCPC 및 BEC 개정 추진

2. 2018년 WHO-FIC 연중회의 참가 결과

3.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개정

4. 마약통계 개선 전문가 작업반 회의 참가 결과

5. 알쏭달쏭 분류사례

6. 2018년 하반기 주요일정

1. KCPC 및 BEC 개정 추진

통합경제분류 연계표 작성 및 경제통계 품목분류 표준화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한국 재화 및 서비스분류(KCPC: Korea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와 상품용도분류(BEC :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개정작업이 2018년에 추진된다.

KCPC 및 BEC 개정작업은 2016년 유엔통계처(UNSD)가 관리하는 중앙생산물 분류(CPC 2.1) 부분개정 및 상품용도분류(BEC 5.0) 전면개정 분류체계의 국내 반영,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작업으로 추진된다.

개정작업은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3월), 통계작성기관 등 대상 제1차 의견 수렴(6월)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2~3차 의견수렴(9월, 11월)을 거쳐 최종안 확정 및 대국민 서비스(12월)를 실시할 예정이다.

【 KCPC · BEC 개정 추진 절차 】

사전준비 (2018. 1.~3.)	분류안 작성 (2018.4.~11.)	최종안 확정 (2018. 12.)	활용 지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국제분류 검토 • 심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조정안/잠정안 작성 • 1차~3차 의견수렴 (1차:6월, 2차:9월, 3차:11월) • 업무협의회/심의회 개최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통보 및 최종 의견수렴 • 최종안 확정 • 대국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자료 발간 • 신/구연계표 작성 • 개정분류 시행

개정작업 진행은 2017년에 통계분류 품질제고를 위해 마련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 훈령 제482호)을 적용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통계작성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수렴은 3차례에 걸쳐 약 160여 통계작성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CPC 2.1(유엔통계처)은 국제농업기구(FAO) 제안에 따라 농업·임업·어업 생산물 세세분류가 대폭 확장되었으며, BEC 5.0은 서비스 거래 부문의 성장에 따라 분류 대상범위가 기존의 재화(goods)에서 서비스(service) 부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류체계가 큰 폭으로 전면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 CPC 개정 전후 대분류별 세세분류 수 변화 】

(단위: 개)

코드	대분류 명칭	CPC 2.0	CPC 2.1	증감
	전 체	2,738	2,887	149
0	농업, 임업 및 어업 생산물	208	280	72
1	광석과 광물, 전기·가스 및 물	36	36	-
2	식품, 음료 및 담배 식물·의류 및 가죽제품	356	380	24
3	기타 운송 가능 제품(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외)	386	406	20
4	금속제품, 기계류 및 장비	517	515	△2
5	건설업 및 건설 서비스업	85	85	-
6	운수업, 숙박업·음식점업, 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506	507	1
7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리스업	99	99	-
8	사업 및 생산 서비스업	372	406	34
9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73	173	-

【 BEC 개정 전후 구조 및 분류 수 변화 】

분류	BEC 4.0	BEC 5.0
대분류 구성	<p>〈 경제활동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료품 · 연료, 운할유 수송장비 및 그 부속품 <p>〈 최종용도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원재료 · 소비자 용품 자본재 및 그 부속품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재화 	<p>〈 경제활동 단일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임업, 어업, 식품, 음료, 담배 광업, 채석, 정유, 연료, 화학, 전기, 물, 폐기물 건설, 목재, 유리, 석재, 1차 금속, 주택, 가전, 가구 섬유, 의류, 신발 운송 장비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ICT, 미디어, 컴퓨터, 사업 및 금융서비스 건강, 의약품, 교육, 문화, 스포츠 정부, 국방 및 기타
대상범위	· 재화	· 재화, 서비스
중간재	· 중간재 미구분	· 일반 중간재, 특수 중간재 세분
분류 수	· 대분류 7개, 중분류 14개, 소분류 8개(일부 중분류만 소분류 구성)	· 대분류 8개, 중분류 16개, 소분류 40개, 세분류 32개, 세세분류 80개

2. 2018년 WHO-FIC 연중회의 참가 결과

▶ 세계보건기구의 3대 국제보건분류¹⁾ 개발·개정을 위한 국제회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통계작성을 통한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3대 국제보건분류를 참조분류(Reference classifications)로 명명하여 개발·운영 중이며, 2019년 국제의료행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ICHI) 개발완료(2020년 공표)를 끝으로 참조분류를 완성하고 기존 분류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WHO-FIC은 WHO에서 보건분류(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IC)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주요국에 설치된 협력센터를 통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제보건분류의 제·개정 및 운영·교육 등에 관련된 위원회(개발그룹 포함)별 소규모의 연중회의와 국제보건분류 총회의 개념인 대규모의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 의료행위분류 개발그룹 연중회의

국제의료행위분류(ICHI)의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약 5일간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된 ICHI 개발 그룹(Development Group) 연중회의는 2019년 개발 완료 전, 현장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1차 시험을 위해 일정 수립과 단계별 수행내용을 논의·결정하는 중요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통계청은 회의에 참석하여 ICHI의 국내 현장시험에 대한 선제적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와 사용자 측면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2016년, 2017년 연구결과 발표)하는 등 회의진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그룹과의 공조체계 확립을 통해 올해 ICHI 개발 관련 사업의 동참 요청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1) WHO 국제보건분류 :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참조분류로 명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질병·사인분류(ICD),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이상 3개 분류로 구성됨

▶ **분류체계개발위원회 연중회의**

ICHI 개발그룹 연중회의의 연장선상에서 4월 14일부터 2일간 스위스에서 ICHI의 개발현황 공유를 포함한 참조분류의 증장기 전략적 업무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분류체계개발위원회(Family Development Committee, FDC) 연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ICHI의 1차 현장시험 범위와 일정, 참가국 현황을 발표하고, UN과 WHO의 건강통계지표의 모니터링과 자료제공 등이 가능한 WHO-FIC의 지원활동에 대한 소그룹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계청은 이 회의에 참여하여 「ICF 현장시험사례에 ICD, ICHI의 동시 적용을 통한 참조분류의 연계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일부 결과를 FDC 의장에게 전달하여 연례회의에 포스터로 제출할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건강통계지표의 대부분이 사망률 관련 사항으로 국가사망원인통계를 작성·공표 중인 통계청을 접점(contact point)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 국제의료행위분류 1차 현장적용시험 추진 일정, 4월~10월 】

주요내용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험 참여국 확정 및 시행계획 교육 • 사용자 지침서 및 훈련매뉴얼 개정 완료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험 시행 및 결과제출 	6월 부호적용, 번역 7월 섹션 및 챕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험 결과 분석 • ICHI 2018 Beta판 마무리 및 참가국에 결과 피드백 	7월-8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험 결과 발표 • 공식적인 현장시험(2019년, 2차) 참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시험(1차) : 자발적 참여로 시행 - 본 시험(2차) : 공식적인 문서 시행 고려 중 	10월(연례회의, 서울)

【 국제의료행위분류 1차 현장적용시험 국가별 참여현황, 전체 9개국 】

현장적용시험부문	참여국가
자국어 번역	대한민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ICHI Beta 부호적용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ICHI Beta 섹션 및 챗터 검토	대한민국, 네덜란드, 호주
국가행위분류와 ICHI Beta 매핑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 **기능·장애자문그룹과 교육실행위원회 연중회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개발 및 활용 논의를 위해 2018년 WHO-FIC 기능장애자문그룹·교육실행위원회 연중회의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ICD-11과 ICF간 연계코딩의 운영방법, 원칙·지침을 확정하고 ICF 활용 및 적용확대를 위해 이용자를 위한 교육 자료와 모바일 어플 개발에 대한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ICF 업데이트 안건 중 통계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타 국가위원의 설득을 통해 제출의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안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개정

통계청은 고용직업분류,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ICT직업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의 3종을 직업특수분류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개정에 연동하여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를 개정한다.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는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직업과 일정수준의 교육을 결합한 분류로 2000년에 개발되어 2008년에 1차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다.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정의

-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거나
-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했지만, 보통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가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의 기본체계는 기본분류와 분야별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분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적용하여 설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체능, 관리 및 기타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제7차 개정된 내용과 2016년 9월에 제정된 한국표준교육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수준 2011, 영역 2013)의 개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문이 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영역은 OECD 분류를 기준으로 연계하고 있으나 표준분류와 연계강화 및 분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준과

영역을 ISCED로 통합하여 연계할 예정이며, 기존 OECD와 ISCED-F, 한국표준 교육분류의 연계표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1차 개정(2008) 때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을 부분 반영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전체를 반영하여 연계하고, 개정 결과 및 연계표를 통계분류포털 자료실에 등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특수분류 개정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에 고용직업분류가 개정되었으며 이번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개정 후 하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ICT직업분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 마약통계 개선 전문가 작업반 회의 참가 결과

통계청은 '18.1.29.~31일(3일간) 오스트리아 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주관으로 개최된 『마약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회의(ARQ**)』에 참석하였다.

* UNODC는 2015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 개발·관리 기구이며, 우리청은 ICCS를 기준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중

** Expert working group on improving drug statistics and strengthening the Annual Report Questionnaire (ARQ)

이번 국제회의는 5개 국제기구, 54개국이 참가하였고, 참석자는 대부분 경찰, 검찰, 식약처 등 마약관리, 단속 부처 소속이며, 한국, 멕시코, 헝가리 등 3개국만 통계청 소속이었다.

UNODC가 마약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구성을 위해 대표부를 통해 검찰, 경찰,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에 한국 전문가를 추천 요청('17.12.)한 바, 우리청 추천 전문가가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상기 회의에 공식 초청되었다.

상기 회의는 각국의 마약통계 작성 역량 강화 방안과 마약통계 연례보고서(ARQ) 자료 품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마약통계 관련 국제협력 창구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협력센터 설립 경험이 있는 멕시코 통계청(INEGI)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아·태지역 협력센터 설립 관련 경험 및 정보공유 방안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약통계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주요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되는 자료 간의 통합 및 조정 어려움 - 표준화된 방법론 부족 - 전문화되고 급격히 변화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 역량 부족 - 불법 거래 등 숨겨진 현상 파악 곤란 - 주로 행정자료 기반 통계로, 공공기관과 접촉한 일부만 파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국가별, 지역별 연락거점(focal point) 지정 - 자료 생산 및 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 방법론, 표준정의 등 제공 - 약물 문제의 모든 측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별 약물 감시소 설치가 중요 - 우수사례 공유 및 지원을 위한 포럼 등 개최

〈연례보고서(ARQ) 자료 품질 개선 관련 논의 내용〉

주요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가 너무 길고 복잡함 - 특정 국가에는 관련 없는 질문이 많음 - 이용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필요 - 신항정물질(NPS) 등 새로운 약물 및 SDG 지표 관련 자료 측정 가능성 제고 - 공통적인 정의와 분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을 중요성, 조사가가능성, 자료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조사와 순환조사 항목으로 구분 - 검거, 수감 등 유사한 주제별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자료수집 편의 제공 - 온라인 조사표 개발 - 통일성과 융통성을 갖춘 표준분류 개발

5. 알쏭달쏭 분류사례

I. 산업분류



Q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헬스장운영업은 대분류 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소분류 상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분류코드 91132)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헬스장에서는 개인트레이너들이 별도로 요금을 받고 개인 레슨을 통해 소비자들의 몸매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대분류 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소분류상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서비스업(분류코드 96129)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나 기업체 등의 통계단위를 전제로 산업활동에 따라 부여되므로, 헬스장 내 고용된 개인 트레이너는 별도의 산업분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운동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개인의 심신단련, 건강증진 및 체력조성을 위한 운동지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합니다.
-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II. 직업분류



Q1. 대학교 조교의 직업분류는?

-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조교는 행정조교와 교육·연구 조교로 구분됩니다.
- 행정조교는 학생들의 수강신청, 등록 등의 학사 및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험 감독, 출결 및 과제물 제출 확인 등 교수의 학사 행정업무를 보조하므로 '3127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로 분류합니다.
- 연구(교육) 조교는 학생들에게 동·식물, 화학 등의 실험내용을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거나 교수의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2592 대학 교육 조교'로 분류합니다.

Q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직업분류는?

- 1~2명 정도 일하는 편의점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계산,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매장판매종사원으로 '대분류 5 판매 종사자(52128 음식료품 판매원)'에 해당됩니다.
- 다만, 슈퍼마켓 등 큰 매장에서 주 업무가 물건 진열, 매장 정리를 할 경우는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95391 매장 정리원)'에 해당됩니다.

Ⅲ. 질병분류



Q1. 털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W57.- 외인코드를 부가 적용할 수 있는지요?

* W57.- 무독액성 곤충 및 기타 무독액성 절지동물에 물림 또는 쓰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은 손상, 중독 및 기타 유해 작용(예: 골절, 타박상 등)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한 범주로, 신체 외부의 요인(예: 운수사고, 추락 등)에 의한 손상의 진단에 함께 부여됩니다.
- 이에,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 중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을 매개로 균이 사람의 신체에 감염되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상 적용되는 부호는 ‘제1장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의 범주에 수록된 ‘A75.3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가 적합하며, 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미나 노래기의 물림으로 인해 발생한 피부 상처와 같이 털진드기 자체의 물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 손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외인코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발췌]

A75.3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
 쯔쯔가무시열

Ⅲ. 질병분류



Q2. 턱관절 장애는 왜 'M00-M25 관절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K07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을 한 가지 기준으로 나열해 놓은 단순한 목록이 아닌 병태를 그 특성과 발생원인, 해부학적 구조 등의 설정된 기준에 따라 묶어놓은 하나의 범주체계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한정된 볼륨의 제약 내에서 기본적으로 「① 유행성 질환 ② 체질 또는 전신 질환 ③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④ 발육질환 ⑤ 손상」의 5개 부문에 대한 구분을 원칙으로, 통계작성의 효율성과 역학적 연구의 적절성 등을 위하여 동일한 해부학적 부위에 발생한 병태라 할지라도 병태의 특성 등에 따라 대분류장(22개)을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K07’로 분류된 ‘턱과 치아’의 중요 기능은 통상적으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연하(넘김)를 담당하는 소화기관(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해당 부위에 국소질환이 발생 시 위와 같은 분류체계의 기본적인 구분 원칙 중 ‘③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의 기준에 의거 ‘제11장 소화기계통의 질환’으로 수록되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관절’에 발생한 국소질환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해당 관절의 중요 해부학적 기능과 질환의 특성, 발생원인 등에 따라 달리 구분(구분 도구: 제외, 포함, 용어설명 등의 주석)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 이소골의 관절강직증 → H74.3 적용, 관절에 발생한 양성종양 → D16.9 적용, 사고로 인한 턱관절의 탈구 → S03.0 적용, 고음고관절 → R29.4 적용, 탈구성 고관절 → Q65.6 적용 등)

6. 2018년 하반기 주요일정

산업팀



월	주요 일정
7월	• COICOP-K(표준목적별 지출분류) 쟁점 부문 대상 업무협의회 개최
8월	• COICOP-K(표준목적별 지출분류) 분류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9월	• KCPC·BEC 개정 조정안 제2차 의견수렴 실시
10월	• COICOP-K 개정 2차 조정안 및 신규 연계표 작성
11월	• KCPC·BEC 개정 잠정안 제3차 의견수렴 실시 • COICOP-K 개정 관련 제3차 의견수렴 실시
12월	• KCPC·BEC 최종안 확정 및 대국민 서비스

사회팀



월	주요 일정
7월	•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ICT직업분류) 개정 계획 수립
8월	•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ICT직업분류) 개정 관련기관 의견수렴 실시
9월	•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ICT직업분류) 개정 완료 및 포털 서비스
10월	• 한국표준직업분류 이용 지침서 개편
11월	• 한국표준직업분류 이용 지침서 인쇄 및 배부 • 제3차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12월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검토

보건팀



월	주요 일정
10월	• 2018 WHO-FIC 연례회의 참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활용 교육
11월	• 제4회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150명 예정)